

# 유아들의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

박 영 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학령전기 유아들이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을 구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4세와 5세 유아들에게 세 영역에 속한 다양한 사건을 들려주고 각 사건을 비 허용성, 심각성, 규칙 독립성, 일반성, 개인적 선택 가능성의 준거에서 평가하게 하고 각 사건을 허용하거나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다. 또한 각 사건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하게 하였다. 만4세 유아들은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을 도덕적 영역의 사건 보다 또 개인적 영역의 사건을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보다 더 허용하였고, 덜 나쁘고, 덜 규칙 독립적이고, 일반성이 적고, 개인적 선택이 더 가능하다고 보아 모든 준거에서 세 영역을 구분하였다. 만5세 유아들도 개인적 영역의 사건을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보다 더 허용하였고, 덜 나쁘고, 덜 규칙 독립적이고, 일반성이 적으며, 개인적 선택이 더 가능하다고 보아 개인적 영역을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과 잘 구분하였으나 어떤 준거에서도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러나 4세와 5세 유아들 모두 각 영역의 사건에 대한 정당화 반응에서는 세 영역을 구분하였다. 또한 4세 유아들은 모든 영역의 사건에 대한 통제권이 부모에게 있다고 보았으나 5세 유아들은 개인적 영역의 사건에 대한 통제권이 아이에게 있다고 보는 경향과 부모에게 있다고 본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주요어 : 도덕적 영역, 사회 관습적 영역, 개인적 영역, 영역모형, 학령전기 유아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다양한 원칙들이 있다. 이 중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것은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관습이다. 도덕적 규범이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일군의 의무적 원칙들로 구성되며 정의, 공정함, 개인의 권리와 행복이 문제가 된다. 사회적 관습이란 사회체계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화롭

\* 이 논문은 2005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박영신, E-mail: yoshpark@mail.knu.ac.kr

게 하는 행동상의 통일성을 위한 임의적 원칙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안 된다’는 원칙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에 속한다. 그러나 ‘선생님의 이름을 불러서 안 된다’는 원칙은 학교라는 사회체계 내에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화롭게 하고 또 통일되게 하기 위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관습에 속한다.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관습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입장이 제안되어 왔다. Piaget(1965)와 Kohlberg(1969)는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관습은 하나의 개념 영역에 속하며 아동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같은 도덕적 개념과 사회적 관습과 같은 비 도덕적 개념이 점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uriel(1983; 1995)은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관습은 처음부터 관련된 개념들로 조직화되어 있는 독자적 개념 영역이며 아동들이 주변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아동들에게 서로 다른 사회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이 언제부터 출현하는지가 오랫동안 많은 연구의 관심사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들에게 도덕적 또는 사회 관습적 영역에 속하는 전형적 **위반 사건**들을 제시하고 여러 준거에서 평가하게 한 다음 그 반응을 비교하였다. 많이 사용되어 온 준거는 주로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을 차별화하는 핵심적 특성들로 비 허용성, 심각성, 권위 또는 규칙독립성, 일반성, 벌의 정도 등이었다. 비 허용성은 특정 사건을 허용할 수 있는지, 심

각성은 특정 사건이 얼마나 나쁜지, 권위 또는 규칙 독립성은 특정 사건이 권위자나 규칙에 달려있는지, 일반성은 특정 사건이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도 좋은지, 벌의 정도는 특정 사건이 벌을 받아야 하는 정도이다.

유아들은 3세 이전에 도덕적 영역의 사건이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보다 더 일반성을 가진다고 평가하여 일반성의 준거에서 두 영역을 구분하였고(Smetana & Brages, 1990) 그 이후 점점 더 많은 준거에서 또 더 많은 문제들에서 일관성있게 두 영역을 구분하였다(Arsenio & Ford, 1985; Nucci, 1981; Smetana, 1981; Smetana & Brages, 1990; Tisak & Turiel, 1984; Tisak & Turiel, 1988),

뿐만 아니라 이런 경향은 브라질(Nucci, Camino, & Sapiro, 1996), 버어진 아일랜드(Nucci, Turiel, & Encarnacion-Gawrych, 1983), 인도(Bersoff & Miller, 1993), 나이지리아(Hollos, Leis, & Turiel, 1986), 홍콩(Yau & Smetana, 2003) 등 미국 이외의 여러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아들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이런 결과들은 Turiel의 주장처럼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은 발달 과정에서 일찍 출현하는 상호 독립되어 있는 사회적 지식의 영역이며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최근 들어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과 더불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은 개인적 영역이다.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되는 영역이라면 개인적 영역은 다른 사람과는 무관하며 행위자 자신과 관련되는 영역으로 행위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질서를 깨는 것과는

무관한 사건들과 관련된 개념 영역이다(Nucci, 1981; 1996). 즉 개인적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로 의무나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가 문제인 사건들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놀이를 하느냐 등은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속한다.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적 영역이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과 구분되는 또 다른 개념 영역인지를 확인하였다. 개인적 영역에 대한 최초 연구에서 Nucci(1981)는 7세부터 19세 아동들에게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의 사건을 제시하고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게 한 다음,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다. 아동들은 개인적 영역의 사건이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보다 덜 나쁘며, 규칙과 무관한 당사자의 문제라고 보았다.

학령전기 유아들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Tisak(1993)은 3.5세에서 6세 사이의 유아들에게 도덕적 위반행동(예, 친구 작품에 우유 쏟기)과 개인적 위반행동(예, 자기 작품에 우유 쏟기)이 얼마나 나쁜지, 또 얼마나 벌을 받아야 하는지 평가하게 하였다. 유아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이 개인적 위반행동보다 더 나쁘고, 더 벌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평가하였고 이런 경향은 4.5세에서 6세 사이의 나이 든 유아들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5세 유아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영역의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Killen & Smetana, 1999). 3세에서 5세 유아들에게 주인공이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교사가 지시하는 자리에 앉고, 활동을 하고, 음식을 먹고, 옷을 입는 이야기를 들려

주자 5세 유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교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개인적 행동을 해도 좋다고 보았다.

Nucci와 Weber(1995)는 더 어린 3세와 4세 유아들에게 주인공이 성인들의 기준이나 바람과 위배되는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행동을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유아들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른에게 순종해야 하고, 어른이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규칙이나 부모의 지시가 없어도 그런 행동을 해서 안 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개인적 영역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른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며, 어른이 결정권이 없고, 규칙이나 부모의 지시가 없으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해도 좋다고 보았다.

이런 경향은 여러 문화권에 사는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들에서도 관찰되었다. Brazilian 중산층과 저소득 계층 8세, 12세와 16세 아동들은 친구선택, 머리스타일 등과 같은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서는 부모의 바람과 갈등이 되어도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개인적 선호이며 개인의 권리라고 설명하였다(Nucci, Camino, & Sapiro, 1996). 이러한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는 저소득층 아동들보다 중산층 아동들에서 먼저 나타났다.

콜롬비아 중산층 3세, 5세와 7세 아동들에게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의 사건을 들려주고 원하지 않아도 교사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지, 교사가 아동에게 명령하는 것이 옳은지, 교사와 아동 누가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물었다(Ardilla-Rey & Killen, 2001). 연령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은 개인적

문제와 일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아동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고, 많은 아동들은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에의 문제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교사가 별 보다 협상이나 설명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동양 문화권에 속한 3세와 4세의 홍콩 유아들도 비 허용성, 심각성, 규칙독립성, 개인적 선택 가능성, 일반성의 모든 준거에서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의 사건들을 구분하였고,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의 문제는 부모들에게 통제권이 있지만 개인적 영역의 문제는 아이들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보았다(Yau & Smetana, 2003). 이런 결과들은 도덕적 영역이나 사회 관습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영역도 범문화적이며 보편적인 사회적 지식의 영역으로 발달과정에서 상당히 일찍부터 출현함을 보여준다.

## 연구문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연령층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언제부터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Song, Smetana와 Kim(1987)은 5세부터 18세 아동들이 일반성, 규칙독립성과 비 허용성의 준거에서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을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도덕적 영역의 사건은 의무, 정의나 타인의 행복으로 또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은 권위, 사회적 동조, 개인적 이유 등으로 설명함을 밝혔다. 그 이후 연구들은 더 어린 만3세에서 5세 사이의 학령전기 유아들도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을 구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김보들맘, 1993;

김진아와 엄정애, 2006; 박영신 1999, 2001; 송미화, 1997; 장금순, 1988; 최보가와 송미화, 1996).

이 연구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과 더불어 Turiel의 영역 모형의 타당성과 보편성을 다시 확인해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 유아들의 특수성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유아들은 심각성이나 별의 정도와 같이 양적 판단이 요구되는 일부 준거에서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을 구분하였고 비 허용성, 일반성이나 규칙 독립성과 같은 준거에서는 두 영역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 때까지 우리나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의 발달은 많이 연구되어 온 반면 개인적 영역의 발달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개인적 영역도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과 같이 독자적인 개념 영역일 뿐 아니라 브라질(Nucci, Camino, & Sapiro, 1996), 콜롬비아(Ardila-Rey & Killen, 2001), 홍콩(Yau & Smetana, 2003), 그리고 미국에 이민 간 중국 아동 등(Xu, 2001) 다양한 문화권에 사는 아동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적 영역은 유아들의 개인적 고유성과 관련되는 영역이므로 이 영역의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다양한 개인적 문제들에 대해 유아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통제권을 강하게 행사하는 문화에서는 개인적 영역의 발달이 다른 나라 유아들에서 보다 늦을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의 발달에만 집중되었던 선행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우리나라 유아들에서도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이 서로 구분되는 독자적 개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세 영역에 속한 전형적 행동들에 대한 여러 준거에서의 평가와 정당화를 비교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D광역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4세 유아 21명과 만5세 유아 2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만4세에는 여아 11명, 남아 10명, 그리고 만5세에는 여아 11명, 남아 15명이 참여하였다. 만4세 유아들의 평균 연령은 4.2세였고(3.5세~4.8세), 만5세 유아들의 평균 연령은 5.85세였다(5.5세~6.2세). 유아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에서 중하 정도였고 이들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은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 자극

유아들에게 제시된 자극은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의 사건에 대한 여섯 개의 이야기였다. 도덕적 영역의 사건은 도덕적 규칙을 어긴 사건들로 주인공이 블록으로 만든 집을 다른 아이가 와서 부수기, 똥똥하고 못 생긴 친구 놀리기,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은 사회적 관습을 어긴 사건들로 선생님 이름 부르기, 손으로 음식 먹기, 개인적 영역의

사건은 두 가지 놀이 가운데 하나 선택하기, 두 명의 친구 가운데 같이 놀 친구 한 명 선택하기였다. 이 이야기들은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유아들이 유치원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 가운데에서 선정하였다.

유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이야기 내용을 한 장의 A4 용지에 색깔로 그려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 보여 주었다. 그림과 이야기는 각각 두 세트 준비하여 여아들에게는 주인공이 여자인 이야기와 그림 세트를, 남아들에게는 주인공이 남자인 이야기와 그림 세트를 제시하였다.

### 절차

실험은 유아들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조용한 방에서 여자 실험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실험자는 심리학과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 두 명이였다. 유아들이 실험에 친숙하도록 하기 위해 여아들에게는 여자 인형을 주인공으로, 남아들에게는 남자 인형을 주인공으로 소개한 다음 ‘오늘 선생님과 같이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이야기를 잘 듣고 대답하라’고 지시하고 그림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섯 개의 이야기는 도덕적, 개인적, 사회 관습적, 사회 관습적, 개인적, 도덕적 영역의 순서로 제시하였고, 각 영역 내에서 두 이야기는 무선으로 배치하였다. 모든 유아들에게 이야기는 동일한 순서로 제시되었다.

각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유아에게 이야기에 그려진 사건을 비 허용성, 심각성, 규칙

표 1. 이야기와 질문의 예

영희가 유치원에서 블록으로 예쁜 집을 만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와서 만들어 놓은 집을 부숴 버렸어요. 영희는 정말 화가 나서 그 아이를 때리고 싶었어요.	
비 허용성	영희가 때리면 될까?
심각성	때리는 것은 괜찮아, 조금 나빠, 많이 나빠, 많이많이 나빠?
정당화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규칙 독립성	선생님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으시면 때려도 될까?
개인적 선택 가능성	영희가 정말 정말 하고 싶으면 때려도 될까?
일반성	유치원 말고 집에서 그래도 될까?
통제권의 소재	영희가 누구를 때려도 되는지 정하는 사람은 누굴까? 영희? 엄마? 아빠?

독립성, 개인적 선택 가능성, 일반성의 준거에서 평가하게 하였고, 정당화에서는 각 사건을 허용하지 않거나 또는 허용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였고, 또 각 행동에 대한 통제권의 소재를 결정하게 하였다. 이 준거들은 선행연구, 특히 Yau 등(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마련하였고 이야기와 각 질문의 예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심각성에 대해 질문할 때에는 크기가 다른 네 개의 동그라미를 제시하고 주인공의 행동이 ‘괜찮은지, 조금 나쁜지, 많이 나쁜지, 많이많이 나쁜지’를 적절한 동그라미를 선택하여 표시하게 하였다. 면담에 걸린 시간은 유아 당 15분에서 20분 정도였다.

## 결 과

### 분석방법

**준거에 대한 판단.** 비 허용성, 심각성, 규칙 독립성, 개인적 선택 가능성 및 일반성의 다

섯 준거 가운데 심각성을 제외한 모든 준거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을 0 또는 1로 코딩하였다. 즉 위반행동을 허용한다는 반응, 규칙 의존적 반응, 개인적 선택을 허용하는 반응, 일반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응은 0, 위반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반응, 규칙 독립적 반응, 개인적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반응, 일반성을 인정하는 반응은 1로 코딩하였다. 심각성에서는 ‘괜찮다’는 0, ‘조금 나빠’는 1, ‘많이 나빠’는 2, ‘많이많이 나빠’는 3으로 코딩하였다.

**정당화.** 이야기에 제시된 행동을 해서 안 되거나 또는 되는 이유에 대한 유아들의 설명은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여덟 범주로 구분하였다(Smetana, Toth, Cicchetti, Bruce, Kane, & Dabbis, 1999; Yau & Smetana, 2003). 첫째 범주는 ‘타인배려’로 신체적 상해, 심리적 손상, 상처, 상실, 또는 부정적 정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긍정하지 못한 행동들로 설명하는 경우이다. 둘째 범주는 ‘벌 회피나 권위자의 금지’로 처벌받거나 곤란에 빠진대거나 권위자나 규칙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이다. 셋째 범주는 ‘관습적 행동’으로 예절, 신분의 차이, 문화적 또는 지역적 규준이나 기대로 설명하는 경우이다. 넷째 범주는 ‘개인적 선호’로 개인적 선택이나 선호로 설명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범주는 ‘개인 안전(prudential)’으로 건강, 안전이나 편안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경우이다. 여섯째 범주는 ‘현실적 이유’로 행동이 현실적 결과를 일으킨다고 설명하는 경우이다. 일곱째 범주는 ‘미분화’로 단순히 행동이 나쁘거나 잘못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

우이다. 마지막 범주는 ‘무반응 또는 부적절한 반응’으로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질문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반응을 하는 경우이다. 특정 범주가 선택되었을 때에는 1, 선택되지 않았을 때에는 0으로 코딩하였다. 각 이야기에 대한 유아들의 정당화 자료는 한 번만 체크하였다. 정당화 자료는 두 명의 평가자들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였고, 두 평가자 간의 일치도는 85%였다.

**통제권의 소재.** 통제권의 소재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은 아이와 부모의 두 범주로 분류하였고 부모의 범주에는 ‘엄마’, ‘아빠’, 또는 ‘엄마와 아빠 모두’라고 한 반응을 모두 포함시켰다. 특정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에는 1,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는 0으로 코딩하였다.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에 대한 반응**

**준거에 대한 판단.** 각 영역의 사건에 대해 비 허용성, 심각성, 규칙 독립성, 개인적 선택의 불허, 일반성을 지지하는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이 자료들이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심각성을 제외한 모든 준거에 대한 반응은 비율자료이므로 비정상성을 수정하기 위하여 원점수를 Arcsine 변환시킨 후(Winer, Brown, & Michels, 1991) 변환된 자료를 2(연령) × 3(영역) 반복측정에 의한 ANOVA로 분석하였다. <표 2>에는 해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변환점수가 아니라 원점수를 제시했다.

비 허용성에서 연령( $F(1, 44) = 6.82, p < .05$ )과 영역( $F(2, 88) = 422.73, p < .01$ )의 주 효과와 연령×영역 상호작용 효과( $F(2, 88) = 15.87, p < .01$ )가 유의하였다. 4세 유아들은 도덕적 영역의 사건을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보다( $F(1, 19) = 12.67, p < .01$ ), 그리고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을 개인적 영역의 사건보다 더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F(1, 19) = 53.07, p < .01$ ). 그러나 5세 유아들은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을 비슷하게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을 개인적 영역의 사건보다 더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F(1, 25) = 3008.38, p < .01$ ).

심각성에서는 영역의 주 효과만이 유의하였다( $F(2, 90) = 136.11, p < .01$ ). 유아들은 도덕적 영역의 사건을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

표 2. 각 준거에 대한 판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도덕적 영역			사회 관습적 영역			개인적 영역		
	4세	5세	전체	4세	5세	전체	4세	5세	전체
비 허용성	.97 (.11)	1.00 (.00)	.99 (.07)	.76 (.26)	1.00 (.00)	.89 (.21)	.12 (.27)	.04 (.14)	.07 (.21)
심각성	2.35 (.73)	2.27 (.86)	2.31 (.80)	2.07 (.75)	2.11 (.82)	2.10 (.78)	.55 (.84)	.25 (.49)	.38 (.68)
규칙 독립성	.98 (.11)	.98 (.10)	.98 (.10)	.75 (.26)	.92 (.23)	.85 (.26)	.28 (.34)	.29 (.38)	.29 (.36)
개인적 선택 가능성	.93 (.23)	.92 (.18)	.93 (.21)	.71 (.26)	.86 (.30)	.80 (.29)	.21 (.30)	.10 (.26)	.15 (.27)
일반성	.95 (.15)	1.00 (.00)	.98 (.10)	.74 (.26)	.98 (.10)	.87 (.22)	.12 (.22)	.13 (.27)	.13 (.24)

과 유사하게 보았으나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을 개인적 영역의 사건보다 더 나쁘게 보았고( $F(1, 45) = 179.2, p < .01$ ) 이런 경향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규칙 독립성에서도 영역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고( $F(2, 88) = 95.58, p < .01$ ) 연령×영역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수준에 미쳤다( $F(2, 88) = 3.02, p < .1$ ). 4세 유아들은 도덕적 영역의 사건을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보다( $F(1, 19) = 15.55, p < .01$ ) 또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을 개인적 영역의 사건보다 더 규칙 독립적으로 보았다( $F(1, 19) = 22.77, p < .01$ ). 그러나 5세 유아들은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을 비슷하게 규칙 독립적으로 보았고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을 개인적 영역의 사건보다 더 규칙 독립적으로 보았다( $F(1, 25) = 65.00, p < .01$ ).

개인적 선택의 불허에서도 영역( $F(2, 90) = 138.71, p < .01$ )의 주 효과와 연령×영역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2, 90) = 5.41, p < .05$ ). 개인이 정말 원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4세 유아들은 개인이 원하면 도덕적 영역의 사건보다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을( $F(1, 20) = 77.58, p < .01$ ), 그리고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보다 개인적 영역의 사건을 ( $F(1, 20) = 32.1, p < .01$ ) 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5세 유아들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은 개인이 원해도 비슷한 정도로 해서 안 된다고 보았으나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보다 개인적 영역의 사건은 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F(1, 25) = 117.19, p < .01$ ).

일반성에서는 영역( $F(2, 90) = 276.31, p < .01$ ) 과 연령( $F(1, 45) = 15.05, p < .01$ )의 주 효과와

연령×영역 상호작용 효과가 ( $F(2, 90) = 8.38, p < .01$ ) 유의하였다. 4세 유아들은 도덕적 영역의 사건이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보다 ( $F(1, 20) = 15.0, p < .01$ ), 또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이 개인적 영역의 사건보다 더 일반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F(1, 20) = 55.59, p < .01$ ). 5세 유아들은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이 비슷한 정도로 일반성을 가진다고 보았으나,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은 개인적 영역의 사건보다는 더 일반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F(1, 25) = 244.92, p < .01$ ).

요약하면, 4세 유아들은 모든 준거에서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을 잘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5세 유아들은 심각성이외의 다른 준거에서는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을 잘 구분하지 못하였지만 모든 준거에서 개인적 영역을 다른 두 영역들과 잘 구분하였다.

**정당화.**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의 사건을 허용하지 않거나 또는 허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다. <표 3>에 영역과 연령에 따라 각 범주별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영역 별로 살펴보면 도덕적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범주는 ‘타인배려’였고(29%)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타인배려’ 범주의 절대적 비율은 다른 연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이 밖에도 ‘관습적 행동’ 범주도 일부 나타났다. 사회 관습적 영역에서는 ‘관습적 행동’(33%)과 ‘개인안전’(33%) 범주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밖의 범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 가운데 ‘손가락으로 밥 먹기’에 대해 많은 유아들이 손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사회적

표 3. 정당화 범주별 평균(%)과 표준편차

	도덕적 영역			사회 관습적 영역			개인적 영역		
	4세	5세	전체	4세	5세	전체	4세	5세	전체
타인배려	19 (33)	37 (36)	29 (36)	0 (0)	0 (0)	0 (0)	7 (18)	2 (10)	4 (14)
벌의 회피나 권위자의 금지	2 (11)	6 (22)	4 (18)	5 (15)	10 (20)	7 (18)	5 (15)	2 (10)	3 (12)
관습적 행동	14 (28)	21 (32)	18 (30)	29 (37)	37 (27)	33 (32)	5 (15)	6 (16)	5 (16)
개인적 선호	5 (15)	2 (10)	3 (12)	5 (15)	2 (10)	3 (12)	36 (45)	48 (39)	43 (42)
개인안전	0 (0)	0 (0)	0 (0)	24 (26)	40 (20)	33 (24)	0 (0)	2 (10)	1 (7)
현실적 이유	0 (0)	4 (14)	2 (10)	0 (0)	0 (0)	0 (0)	0 (0)	0 (0)	0 (0)
미분화	17 (29)	13 (27)	15 (27)	11 (22)	6 (16)	9 (19)	0 (0)	2 (10)	1 (7)
무반응 / 부적절 반응	38 (38)	17 (24)	27 (33)	26 (41)	6 (16)	15 (31)	50 (47)	38 (38)	44 (42)

관습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는 반응을 많이 보여서 ‘개인안전’ 범주가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영역에서는 ‘개인적 선호’(43%) 범주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밖의 범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세 영역 모두에서 ‘미분화’와 ‘무반응/부적절 반응’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경향은 도덕적 및 개인적 영역보다 사회 관습적 영역에서 더 낮았고( $F(2, 90) = 12.15, p < .01$ ) 또 5세보다 4세에서 더 심했다( $F(1, 45) = 45.19, p < .01$ ).

전체적으로 볼 때 4세와 5세 유아들은 도덕적 영역의 사건은 ‘타인배려’로,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은 ‘관습적 행동’이나 ‘개인안전’으로, 그리고 개인적 영역의 사건은 ‘개인적 선호’로 가장 많이 설명하였다. 이는 4세와 5세 유아들이 도덕적, 사회 관습적, 그리고 개인적 영역을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영

역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권의 소재에 대한 판단.**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의 사건을 누가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응의 평균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연령과 영역에 관계없이 부모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반응이 아이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반응보다 훨씬 더 높았다. 부모에게 통제권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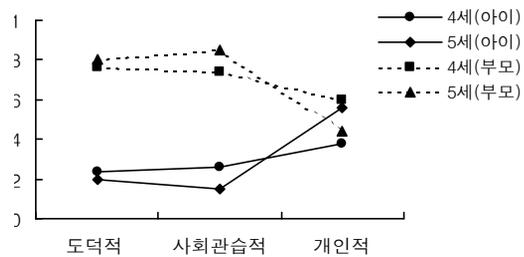


그림 1. 통제권의 소재에 대한 판단

다는 반응을 2(연령) × 3(영역)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영역의 주 효과( $F(2, 88) = 13.81, p < .01$ )와 연령×영역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수준에 미쳤다( $F(2, 88) = 2.82, p < .1$ ). 즉 4세 유아들에서는 부모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반응이 영역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으나, 5세 유아들에서는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에서보다 개인적 영역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F(1, 24) = 21.83, p < .01$ ).

아이들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반응에서는 영역의 주 효과만이 유의하였다( $F(2, 88) = 13.76, p < .01$ ). 아이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반응은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에서 별 차이가 없었으나 개인적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F(1, 44) = 15.21, p < .01$ ).

요약하면, 4세 유아들은 모든 영역에서 아이보다는 부모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5세 유아들도 전반적으로 부모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개인적 영역에 대해 부모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반응은 더 낮았으며, 아이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반응은 더 높았다.

## 논 의

이 연구에서는 만4세와 5세 유아들이 도덕적, 사회 관습적, 그리고 개인적 영역을 구분하는지를 각 영역에 속한 행동에 대한 여러 준거에서의 평가와 정당화를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및 각 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만4세 유아들은 모든 준거에서 도덕적, 사회 관습적, 개인적 영역을 잘 구분하였다. 만4세 유아들은 도덕적 영역의 사건보다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을 또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보다 개인적 영역의 사건을 더 허용하였고, 덜 규칙 독립적이고, 일반성이 적고, 개인이 원하면 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서 대부분의 준거에서 세 영역을 구분하였다. 이는 Piaget(1965)나 Kohlberg(1969)의 주장보다는 Turiel(1983)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만5세 유아들의 반응은 만4세와 차이가 있어 모든 준거에서 도덕적 영역의 사건과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을 유사하게 판단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적 영역의 사건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보다 더 허용하였고, 덜 나쁘고, 덜 규칙 독립적이고, 일반성이 적을 뿐 아니라 개인이 원하면 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서 개인적 영역을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과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만4세와 5세 유아들에서 개인적 영역이 도덕적 영역이나 사회 관습적 영역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개념 영역임을 시사한다. 이는 다른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여 개인적 영역은 발달과정에서 상당히 일찍부터 나타날 뿐 아니라 유아들의 사회적 경험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권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보편적 개념 영역임을 지지한다.

그러나 4세 유아들과 달리 오히려 만5세 유아들은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만4세 유아들과 달리 만5세 유아들에서는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이 독자적 개념 영역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준거에 대한 판단과는 달리 각 영역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 반응

에서 5세 유아들은 4세들 유아들보다 도덕적 행동을 ‘타인배려’, 사회 관습적 행동을 ‘관습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이 가능성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또 다른 가능성은 만4세 유아들처럼 만5세 유아들에서도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이 독자적 개념 영역을 구성하고 있지만 유아들의 어떤 특성이 두 영역의 사건에 대해 차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을 가능성이다. 유아들의 반응을 이야기 별로 분석한 결과,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 가운데 ‘선생님 이름 부르기’에 대해 만4세 유아들과 달리 만5세 유아들은 도덕적 영역의 사건인 것처럼 반응하였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사회 관습적 영역의 사건으로 ‘선생님의 이름을 불러서 안 된다’는 원칙은 사람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윗 사람과 아래 사람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며 사람들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덜 중요시 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5세 유아들은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사회적 관습을 어기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선생님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즉 사회 관습적 사건이 이야기할 수 있는 도덕적 측면에 집중하여 그 사건에 대해 판단하였을 수 있고, 만4세 유아들은 이런 추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유아들에서는 ‘어른에게 인사하기’와 같이 어른들과 관련된 사회적 관습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박영신, 1999; 송명자와 김상윤, 1987; Song, Smetana, & Kim, 1987) 인도의 시골 마을 사

람들에서도 발견되었다(Shweder, Mahapatra, & Miller, 1987). 이 결과들은 Turiel의 영역 모형의 기본 가정의 문제점 즉 영역들 사이의 개념적 또 실제적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영역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에서 유아들은 도덕적, 사회 관습적, 개인적 영역을 잘 구분하였다. 유아들은 도덕적 영역의 행동은 ‘타인배려’ 범주로 가장 많이 설명하였고, 사회 관습적 영역의 행동은 ‘관습’이나 ‘개인 안전’ 범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개인적 영역의 행동은 ‘개인적 선호’ 범주로 가장 많이 설명하였다. 이는 다른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Ardila-Rey & Killen, 2001; Killen & Smetana, 1999; Nucci & Weber, 1995; Yau 등, 2003) 유아들은 여러 준거에 대한 판단에서 뿐 아니라 행동에 대한 정당화에서도 세 영역을 다르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미분화’ 또는 ‘무반응 및 부적절한 반응’의 비율이 24%에서 44%로 아주 높아서 위의 결론은 약 50% 정도의 유아들의 반응에 기초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두 번 정도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유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면접자 훈련을 좀 더 철저하게 하고 또 새로운 면접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어린 유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잘 개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통제권의 소재에 대한 유아들의 판단이 영역에 따라 달라졌다. 4세 유아들은 모든

영역에서 부모들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보았다. 5세 유아들에서도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에서는 부모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반응이 개인적 영역보다 높았지만 아이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반응은 개인적 영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5세 유아들은 부모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결과의 일부는 다른 선행 연구와 일치하나, 또 일부는 크게 달랐다. 다른 나라 유아들도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에 대해 부모가 통제권이 있다고 보았으나(Ardila-Rey & Killen, 2001; Yau 등, 2003), 개인적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유아들과 아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예를 들어, 홍콩 4세 유아들의 66%와 6세 유아들의 78%가 개인적 영역의 통제권은 아이에게 있다고 보았고(Yau 등, 2003), 미국 5세 유아들은 옷, 음식, 활동이나 교실에서의 자리 선택은 부모나 교사가 아닌 자신들의 고유 권한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Killen & Smetana, 1999).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유아들도 다른 나라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준거에서 개인적 영역을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영역의 통제권이 부모들에게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개인적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 자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느냐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도덕적 또는 사회 관습적 사건이나 개인 안전과 관련된 사건은 자신들이 통제해야 하지만 개인적 사건들은 아이들에게 달려있다고 지각하였고(Nucci & Smetana, 1996),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사건들에 관해서는 자녀들에게 직접

적인 의사를 전달하지만 개인적 사건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뿐 아니라 개인적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 관습적 사건보다 유아들과 협상을 더 많이 하였다(Nucci & Weber, 1995). 마찬가지로 일본 어머니들도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 안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한을 두었지만 여가 활동, 옷이나 친구선택의 문제 등에서는 유아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였다(Yamada, 2004).

이에 반해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개인적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유아들에게 통제권을 주지 않고 자신들이 통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정과 일치하여 이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어떤 놀이를 할지는 자신들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누구와 놀지 즉 친구선택은 부모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다른 나라 어머니들이 유아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통제권을 유아들에게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적 영역은 청소년들의 적응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Hasebe, Nucci, & Nucci, 2004) 어린 유아들이 자아감, 행위 유발성(agency) 및 자율감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Killen & Nucci, 1995; Nucci, 1981, 1996).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 영역에 속한 문제들에 대해 자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부모들이 개인적 영역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유아들이 개인적 영역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보들맘 (1993). 도덕적 규칙과 사회 관습적 규칙에 대한 아동의 개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진아, 엄정애 (2006).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 *아동학회지*, 27, 85-100.
- 박영신 (1999). 도덕적 규칙과 사회 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 11-23.
- 박영신 (2001). 한국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 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그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 83-104.
- 송명자, 김상운 (1987). 아동의 도덕사태판단에 있어서 사회 인습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초록*, 140-149.
- 송미화 (1997). 유아성인의 관계방식이 유아의 도덕개념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금순 (1988). 5세 유아의 위반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보가, 송미화 (1996). 유아의 도덕적 및 인습적 규칙에 대한 판단. *대한가정학회지*, 34, 49-62.
- Ardila-Rey, A., & Killen, M. (2001). Middle class Colombian children's evaluations of personal,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interactions in the classroom.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5, 246-255.
- Arsenio, W., & Ford, M.E. (1985). The role of affective information in social-cognitive development: Children's differentiation of moral and conventional events. *Merrill-Palmer Quarterly*, 31, 1-17.
- Bersoff, D.M., & Miller, J.G. (1993). Culture, context,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accountability judge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64-676.
- Hasebe, Y., Nucci, L., & Nucci, M.S. (2004). Parental control of the personal domain and adolescent symptoms of psychopathology: A cross-national stud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hild Development*, 75, 815-828.
- Hollos, M., Leis, P.E., & Turiel, E. (1986). Social reasoning in Ijo children and adolescents in Nigerian communit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352-374.
- Killen, M., & Nucci, L.P. (1995). Morality, autonomy, and social conflict. In M. Killen & D. Hart(Eds.), *Morality in everyday life: Developmental perspectiv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llen, M., & Smetana, J.G. (1999). Social interactions in preschool classrooms and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personal. *Child Development*, 70, 486-501.
-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Go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 Nucci, L. (1981). Conceptions of personal issues: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and societal concepts. *Child Development*, 52, 114-121.
- Nucci, L. (1996). The personal domain. In E. Reed, E. Turiel, & T. Brown(Eds.), *Values and knowledge*. Mahwah, N.J.: Lawrence Erlbaum.
- Nucci, L., Camino, C., & Sapiro, C.M. (1996). Social class effects on Northeastern Brazilian children's conceptions of areas of personal choice and social regulation. *Child Development*, 67, 1223-1242.
- Nucci, L., & Smetana, J.G. (1996). Mothers' concepts of young children's areas of personal freedom. *Child Development*, 67, 1870-1886.

- Nucci, L., Turiel, E., & Encarnacion-Gawrych, G. (1983).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and social concep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4*, 469-487.
- Nucci, L., & Weber, E.K. (1995). Social interactions in the home and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onception of the personal. *Child Development, 66*, 1438-1452.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Shweder, R.A., Mahapatra, M., & Miller, J.G. (1987).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In J.Kagan(Ed.), *The emergence of moral concepts in young children*.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etana, J.G. (1981).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2*, 1333-1336.
- Smetana, J.G., & Brages, J.L. (1990). The development of toddlers' moral and conventional judgment, *Merrill-Palmer Quarterly, 36*, 329-346.
- Smetana, J.G., Toth, S.L., Cicchetti, D., Bruce, J., Kane, P., & Dabbis, C. (1999).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preschoolers' conceptions of hypothetical and actual moral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269-281.
- Song, M.J., Smetana, J.G., & Kim, S.Y. (1987).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77-582.
- Tisak, M.S. (1993). Preschool children's judgments of moral and personal events involving physical harm and property damage. *Merrill-Palmer Quarterly, 39*, 375-390.
- Tisak, M.S., & Turiel, E.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prudential rules. *Child Development, 55*, 1030-1039.
- Tisak, M.S., & Turiel, E. (1988). Variation in seriousness of transgression and children's moral and conventional concep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352-357.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iel, E. (1995). The development of morality.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Winer, B.T., Brown, D.R., & Michels, K.M. (1991). *Statistical principles in experimental design*. New York: McGraw-Hill.
- Yau, J., & Smetana, J.G. (2003). Conceptions of moral, social-conventional, and personal events among Chinese preschoolers in Hong Kong. *Child Development, 74*, 647-658.
- Yamada, H. (2004). Japanese mothers' view of young children's areas of personal discretion. *Child Development, 75*, 164-179.
- Xu, F. (2001). Chinese immigrant children's and mothers' concepts regarding morality, social convention and children's personal autonom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

1차 원고 접수 : 2006. 10. 15

수정 원고 접수 : 2006. 11. 22

최종게재결정 : 2006. 11. 27

##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moral, social-conventional, and personal domains

Young-shin Par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moral, social-conventional, and personal domains was examined with 4- and 5-year-old children. Children evaluated moral, social-conventional, and personal events on six criteria - non-permissibility, seriousness, rule independence, personal choice, generalizability and locus of control, and also provided the justification for their judgment. On all criteria, 4-year-old children distinguished the events from three domains and 5-year-old children only distinguished personal events from either moral or social-conventional events. However, they made clear distinctions among three domains in terms of justifications of their judgments. Most children judged that parents should make decisions about moral, social-conventional, and personal events, but only some 5-year-old children thought children should make decisions about personal events.

*Keywords: moral domain, social-conventional domain, personal domain, domain model, preschoolers*